정교회주보

제2453호

2023.12.31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그리스 아르타의 성 디미트리오스 카츄리 성당(사진)은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9세기 전반의 비잔틴 성당으로 손꼽힌다. 변형된 십자가 형태의 건축 양식이며, 13세기 초에 성당 내부 성화가 그려졌고 종탑은 1911년에 추가되었다. 원통형 외부 돔은 4개의 교차 아치 위에 놓여 있다. 'Katsuri'(카츄리)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성탄 대축일 다음 주일
(신현 축일 전 주일)
성 멜라니 로마인 수녀
(제5조 • 조과 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성탄절 제2 응송 ····· 214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 성탄절 찬양송 ····· 214
- 성탄절 시기송 ····· 214
- 사도경 : 디모테오 후 4,5~8 ···· 150
- 복음경 : 마르코 1,1~8 ····· 150
- 성모송 ····· 216
- 영성체성혈송 ····· 216
- '우리가 참빛' 대신 '성탄절 찬양송'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하느님과의 친교

예언자 다윗왕은 두 가지 강렬한 영적 욕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하느님에 대해 견딜 수 없는 무한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느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열망이 또한 그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사슴이 솟아나는 샘물을 찾아 뛰어가듯이, 내 영혼 또한 하느님 당신을 미친 듯이 갈망하고 있으며 당신과 친교를 맺고 당신의 위로를 맛보려고 애타게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왕은 자신의 이러한 내적 추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망하던 것을, 즉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친교를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서의 메아리' 중에서

세계 총대주교

2023년 성탄절 메시지

새 로마-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이자 세계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구세주 그리스도의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온 교회에 임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형제 주교님들과 주님 안에서 축복받은 자녀 여러분,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올해도, 시초없이 영원하신 성자이자 하느님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나신 성탄, 즉 하느님과 인간의 신비가 드러난 성탄을 찬송과 성가와 영적 노래를 통해 경축합니다. 니콜라스 카바실라스 성인에 따르면, 성찬예배 때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성육신의 신비"이며, 예배 시작 때의 외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나라가 찬미되나이다"는 "하느님이 세 위격을 가지셨음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주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였음의 증거가 됩니다(『성찬예배 주해』, 48쪽). 성인은 또한,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과 삶과 그 밖의 모든 측면에서, 참되고 완전한 인간상을 보여준 처음이자 유일한 분" (『그리스도 안의 삶』, 215쪽)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자 말씀의 위격 안에 인간 본성을 부여하는 것과, 은총을 통해 인간이 신화(神化)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은 인류에게 최고의 가치를 더해 줍니다. 이 진실을 망각하면 인간에 대한 존중이 약화됩니다. 인간의 최고의 운명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을 해방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축소와 분열을 야기합니다. 자신의 거룩한 기원과 영원에 대한 희망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인간으로 남아 있기가 어렵고, "인간적 조건"의 모순을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는 우리 세상에 폭력, 전쟁, 불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 평화, 정의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를 확립하려면 인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위한 투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견해는,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이라고 인사하며 평화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도록 격려하시는(마태오 5,4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평화의 복음"(에페소 6,15)이 전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로 가는 길은 평화를 통해서이며, 서로 간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방법보다도 비폭력, 대화, 사랑, 용서, 화해가 우선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의 신학은 세계 총대주교청의 문서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정교회의 사회적 윤리(2020)」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에 따르면,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뜻에 더 반대되는 일은 없습니다. … 결국 폭력은 가장 큰 죄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폭력은, 하느님과 우리 이웃과 함께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창조 본성과 초자연적인 소명에 완전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 평화는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또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그려진 대로의 창조의 깊은 실체를 밝혀주는 것입니다.”(42-44항)

평화는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의무이며, 평화는 지속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투쟁으로 얻어지는 성취입니다.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에 대한 계속되는 위협 앞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각심과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위대한 영웅은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입니다. 종교가 평화, 연대, 화해의 힘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광신주의와 폭력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종교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광신주의와 폭력은 종교적 믿음에서 멀어진 결과이지,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종교적 광신주의로부터 멀어지는 데 있어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종교는 평화와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또 인간이 유발한 파멸로부터 피조물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인류의 진정하고 참된 조력자입니다.

올해 인류는 ‘세계 인권 선언(1948년 12월 10일)’의 선포 75주년을 기념합니다. 이 선언은 “모든 민족, 모든 국가가 지향해야 할 공동의 이상”인 기본적 인도주의 이상과 가치를 요약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생태적 조건의 보호를 중심으로 삼는 인권은, 그것이 자유 및 정의와 연관된 세계 평화의 기초이자 기준으로 인정될 때 비로소 권리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과 평화의 미래는, 인권과 평화를 존중하고 현실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종교의 기여와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축제적인 마음으로, 교회의 삶 그 자체가 비인간성에 대한 저항으로 이루어진다는 온전한 확신으로, 평화와 화해의 문화를 건설하는 선한 투쟁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협적 존재나 적수가 아니라 형제자매나 친구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녀 여러분, 성탄절은 자기 인식과 감사의 시간이고,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분’과 ‘신화(神化)할 수 있는 인간’의 차이가 드러나는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큰 기적’을 깨닫는 시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한 ‘큰 상처’가 치유되는 ‘큰 기적’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육화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팔에 안고 계신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앞에 경건하게 무릎을 꿇으며, 거룩한 어머니 교회인 세계 총대주교청의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총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결실을 맺고 평화롭고 즐거운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하느님께 열렬히 간청하는

✝바르톨로메오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성인의 가르침

바른 자세

어느 지혜로운 스승이 말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용서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부당하게 대하거나 또는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담과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불의하고 모략하고 악의적인 사람은 사탄과 다를 바가 없다."

신년, 신현 축일 예배 안내

2024년 1월 1일(월)	
오전 9:00	축일 조과
오전 10:00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신년 대영광식

1월 5일(금)	
오전 9:00	신현 축일 대시과
오후 5:00	대만과 및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1월 6일(토)	
오전 9:00	신현 축일 조과
오전 9:4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오전 11:15	신현 축일 대성수식

(지역 성당별 자세한 시간은 해당 성당에 문의 바랍니다.)

소 식

▦ 신자 총회 공고

각 성당의 2024회계년도 정기 신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지난해 결산과 새해 예산, 영적 사업, 주요 현안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 신자는 꼭 참석해 주십시오.

- 1월 7일 (주일) – 서울, 전주, 춘천, 울산 성당
- 1월 14일 (주일) – 부산, 인천 성당

▦ 대교구 의회 개최 공고

1월 21일(주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으로 '제20회 대교구 의회'를 개최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세례신자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안 결의와 발언권은 대교구 정관에 따라 의회 의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참석하시는 일반 신자들께서는 대교구 사업과 교회 발전 방향에 대해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줌 링크 주소는 나중에 각 성당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가정 성수식 안내

정교회 전통에 따라 신현 축일을 맞아 가정 성수식을 거행합니다. 원하는 가정은 각 성당 신부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데즈모스 겨울 수련회 안내

신데즈모스(예비 신자 포함)의 겨울 수련회가 열립니다. 다음 주일(7일)까지 각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날짜 : 1/12(금)–14(일) (참가비 6만원)
- 장소 :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